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번째 법회인 제26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51일차
3월 7일
특별 법문
진오스님
사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58일차
3월 14일
특별 법문
명연스님
서봉사 주지



●100일차
4월 25일
회향 법회
무관스님
해인사 총재암

◆ 일시 : 2014년 1월 16일 ~ 4월 25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46일차	3월 2일 回	효법스님	해인사 학감	54일차	3월 10일 回	경조스님 (비구니)	보현정사
48일차	3월 4일 回	혜능스님	직지사 강주	55일차	3월 11일 回	진관스님 (비구니)	운문승가대 학감
49일차	3월 5일 回	선일스님	인천 법명사 주지	56일차	3월 12일 回	대현스님 (비구니)	정암사 주지
50일차	3월 6일 回	경성스님	해인사 희랑대	57일차	3월 13일 回	운산스님 (비구니)	운문승가대 강사
51일차	3월 7일 回	진오스님	사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58일차	3월 14일 回	명연스님 (비구니)	서봉사 주지
52일차	3월 8일 回	선정스님 (비구니)	대구 보현암 주지	60일차	3월 16일 回	세준스님	동국대 교수
53일차	3월 9일 回	현정스님 (비구니)	대원사 주지	61일차	3월 17일 回	일선스님	보림사 주지



제27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5월 13일(화)

회향 : 2014년 8월 20일(수)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9월 14일(일)

회향 : 2014년 12월 22일(월)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3 | Vol. 238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새해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매월 보름날 오후 2시에는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를 봉행하고, 천일법회 때마다 천주를 만들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천일기도비는 입재시 10만원, 매월 보름마다 30개월 동안 3만원씩입니다. 또한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에게는 천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천일의 발원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담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니라.
삼일 동안 님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와 같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자경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몸 낮추는 계절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초발심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불국토의 바다에
편히 앉게 되나니 이를 일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걸음, 걸음들이 더디기만 하여 급한 마음 밭에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탐욕심이 지은 업으로 뒤틀려 어긋나 악연의 고리에 걸려 든
인연들이 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어긋남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되어 화락하게 하옵기를 발원합니다.

여기, 법왕사 불자들이 천일의念을 세웠습니다.
신심깊은 불자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 천일의念이
완성되는 날 소구소원하신 모든 발원이 성취되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우리 모두 관세음 되게 하여 지이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 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에게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Vol. 238호



- 04 깨침의 향기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청정(淸淨)한 마음자리가 곧 열반(涅槃)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오행사상이 깃들여 있는 단청 · 조명래
- 18 명찰순례
피안에 이르는 길목 철원 화개산 도피안사
- 22 법회이야기 | 팔상성도법회
부처님의 일대기 팔상성도
- 24 특집 | 화보
액난소멸 기원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0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8(서기 2014)년 3월 01일 발행 | 통권 238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대일, 강선옥, 대혜궁, 묘향심, 반야화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의상대사 법성계 ‘법성원융
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에
서 말하는 무이상(無二相)
즉, ‘두 모습이 없다’는
것이나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와 나, 중생과 부처, 미망과 깨달음, 생사와 열반 등 온갖 개념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경지에 다다를 때 그것이 곧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오래 사는 것과 짧게 사는 것에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주 속의 모든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짧은 수명과 긴 수명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 서는 이를 불이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찰들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찰의 입구에 해당되는 일주문(一柱門)과 중턱의 천왕문(天王門), 그리고 마지막에 불이문(不二門)이 법당을 바라 보며 일직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문은 달리 해탈문(解脫門)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부처님을 모신 법당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일주문이란 사찰에 들어가는 첫 문으로 모든 진리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만법귀일(萬法歸一)’과 우주만유(宇宙萬有)는 일심(一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일주문은 진계(眞界)인 사찰 경내와 속계(俗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천왕문은 삼보(三寶)가 계시는 사찰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모신 문이며, 해탈문은 그 문을 통해 다니는 사람은 누구라도 모든 번뇌와 미혹에서 벗어나 해탈(解脫),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라는 정진과 수행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이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불이(不二)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생(生)과 사(死)가 둘이 아니며,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나오는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중에서 무이상(無二相) 즉, ‘두 모습이 없다’는 것이나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는 그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불이의 경지는 유마경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월상보살은 “어둠은 밝음으로 더불어 둘이라 하나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곧 둘 있음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마치 멸진정(滅盡定: 무심정의 하나로 모든 심상을 없애고 닦는 선정을 말한다)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온갖 법의 모습도 또한 다시 이러진대, 그 가운데 평등하게 드는 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리와 우리 불교의 교리를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교리가 바로 이 불이사상(不二思想)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를 중도(中道)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녹야원에서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사문들을 향해 최초의 설법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중도법문(中道法門)입니다.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문들이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다. 사문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치우친 길이란,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겨 버리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이다.

사문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여래는 바로 이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 여래는 그 길을 깨달음으로써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사문들이여, 그렇다면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덟 가지로 되어 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명상이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교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문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교교리가 어렵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하나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그 자체를
수행자의 삶처럼 살아간
다면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부중생들도 일상생활
에서 진리를 느끼지만
그 찰나에 머물기
때문에 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문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연기를 이해하고 인과법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은 불이의 좋은 예입니다. 녹색등은 ‘가도 좋다’는 신호이고 적색등은 ‘가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녹색등은 ‘생(生)’이며 적색등은 ‘사(死)’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색등일 때 앞으로 나가면 옆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게 될 것이고 녹색등일 때 가지 않고 서있다면 뒤차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 현실에 처한 ‘나’의 관점에서 보면, ‘가느냐’ ‘못가느냐’ 또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눈앞의 문제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법, 다시 말해서 연기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할 때는 가야하고 서야 할 때는 정지해야 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원만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운전을 할 때 비로소 안전운행과 교통질서가 확립되는 것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자의 삶처럼 살아간다면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범부중생들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진리를 느끼지만 그 느낀 순간이 찰나에 머물기 때문에 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 깊숙이 잠들어 있는 부처를 보듬고 살면서 그 그것을 모릅니다. 마조스님의 말씀처럼 ‘평상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는 부처는 봄별에 돌아나는 새싹처럼 기지개를 켤 것입니다.

청정(淸淨)한 마음자리가 곧 열반(涅槃)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세속 용어로 하자면 ‘죽었다’, ‘돌아가셨다’ 혹은 ‘서거하셨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이 이승의 인연이 다 하여 몸을 버리고 가는 경우에 ‘열반(涅槃)하셨다’ 고 말합니다.

‘열반(涅槃)’은 범어의 ‘nirvana’를 음역한 말로써 그 뜻은 적멸(寂滅), 멸도(滅度), 해탈(解脫), 반열반(般涅槃), 대반열반(大般涅槃) 등을 뜻합니다. 이 열반의 원래 의미는 ‘불어서 끄다[吹滅]’ 또는 ‘불이 꺼진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중생에게 번뇌(煩惱)의 불꽃이 사라진 마음의 이상적인 경지를 비유해서 차용한 말입니다.

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초파일과, 2월 8일 출가일, 12월 8일 성도일, 2월 15일 열반일을 4대 명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전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열반은 불도의 궁극적인 경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열반이라는 의미는 오랜 불교사에서 보면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탐욕[貪]을 영원히 끊고, 노여움[瞋]을 영원히 끊고, 어리석음[癡]을

영원히 끊어 일체의 모든 번뇌를 끊은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진치 삼독(三毒)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수행을 통해 마음의 때를 모두 소멸한 상태를 일컬어 열반이라고 하여 가장 소극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파불교 시대에는 번뇌의 때는 끊었지만 번뇌를 일으키는 바탕인 육신이 아직 남아 있는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과 번뇌는 물론이고 몸과 마음이 의지할 장소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상태인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의 열반 4덕을 진정한 열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열반경』에서는 상(常), 항(恒), 안(安), 청정(淸淨), 불노(不老), 불사(不死), 무구(無垢), 쾌락(快樂)의 8미(八味)가 열반에 구비되어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일러 자성청정열반(自性淸淨涅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는 번뇌나 지혜의 상대적인 경계에 물들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청정한 진여의 이체(理體)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식불교에서는 열반 가운데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라 하여 어디에도 머무이 없는 것, 다시 말해 삶과 죽음 어디에도 안주함이 없는 상태, 궁극적으로 불도를 닦아서 완성하는 하나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반이라고 표현되는 부처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인 부처님께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부처님은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육신에 집착이 강한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버리는 열반을 통해 ‘헛된 육신을 벗어나서 진실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열반일을 맞아 부처님께서 열반을 통해 중생들을 깨우친 바를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증득한 사람은 열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반은 증득할만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돌이켜 청정한 마음 자리를 관(觀)한다면 그 상태가 열반인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어떠한 장소를 표시할 수 없다면 없는 것과 같고,
만약에 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중간에 표(標)하였을 때, 동에서 보면 서가 되고
남에서 보면 북이 되기 때문이다.”

루소는 “인간은 흠과 멀어질수록 질병과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 문명의 편리한 주거생활이 거꾸로 심신에 깃든 신령함을 해칠 수도 있음을 간파한 데서 한 말이라. 보기에 불안정한 수직공간에 밀집된 가족 구조인 아파트가 비친화적이며 고층일수록 밝고 건강한 정서와 배치되는 것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몸담고 사는 가운데,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등골이 췌 만큼 고학력 지식사회를 자랑하면서도

걱정할 정도로 사회불안지수가 높은데는, 몸담고 살아가는 거주공간 형태와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 것이다.

매사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인 ‘이유 없는 반향’과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까닭 없이 피해를 입으며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하는 ‘묻지마 범죄’는 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심리 양상이며,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잔혹한 살상행위를 비롯, 존속을 해치는가 하면 근친상간의 패륜·패악이 전에 없이 예사로 일어나는 것은 저마다 심중 한 구석에 잠

히지도 않고 알 수조차도 없는 불안한 심리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얼이 깃든 심신의 쉼터인 집이 허공간을 차지하며 수직선상의 공간구조를 이루는 아파트는 마치 깎아지른 절벽, 그곳이 안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만큼 불안과 위험이 더해진다. 그렇듯이 고층일수록 알게 모르게 그 속에 몸을 의지해 사는, 우리 인체구조의 특성상 생체리듬이 갖는 부조화를 발달시키면서 마음이 누릴 평형의 자유를 깨뜨리며 심신마저 허약하게 만든다. 또 급작스레 바뀐 주거문화의 이질감과 함께 여기에 전자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오는, 갖은 형태의 중독성 부작용이 쌓이듯 체내에 누적되어 불안심리를 가속화하여 어느 한 순간 돌발행위로 표출하는 것이다.

한 생각 쉬면 그것이 곧 깨달음

‘반본환원(返本還源)’이라는 말이 있다. 본래 자기 마음자리로서 마땅히 회복해야 할 참마음의 본질을 치열히 탐구, 선문답으로 해법을 제시하며, 지혜에 눈 뜬 선사(禪師)들이 전하는 극적인 장면은 그것만으로도 후학들에게 마음의 실체를 일깨우는 훌륭한 귀감이 된다.

혜가: 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오니 스님께 서 안심시켜 주시옵소서.

달마: 네 마음을 가져 오너라. 내 안심시키리라.

혜가: 마음은 찾아보아도 얻을 수가 없나이다.

달마: 내 이미 네 마음을 안심시켰었노라.

승찬: 제게 해탈법문을 일러주십시오.

도신: 누가 너를 얹어매어 속박하였느냐?

승찬: 아무도 속박하지 아니 하였습니니다.

도신: 하면, 어찌하여 다시 해탈을 구하느냐?

도신: 네 성(姓)이 무어냐?

홍인: 성은 있으나 좀 특이합니다.

도신: 그 무슨 성이고?

홍인: 불성(佛性)입니다.

도신: 너는 그럼 성이 없구나!

홍인: 성품이 본래 공(空)하여 달리 성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도 하는 불성(佛性)은, 텅 빈 무심의 투명한 마음에서 드러난다. 찰나삼매, 순간삼매를 이루며 한 생각 쉬면 한 생각 부처(깨달음)요, 두 생각 쉬면 두 생각 부처로서 방울물이 점차 그릇을 채우듯, 부단한 노력으로서 수행의 깊이는 더해가며, 본래 밝은 자성불(自性佛)이 맑음을 추구하는 그 과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보는 것,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생각이 몸 동작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보는 눈음 보고 듣는 눈음 보는 것, 주체와 객체 간에 틈새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느낌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것이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마음을 머물도록 하는 것이며, 행위하는

주관적인 나를 두고 지켜보는 객관적인 나를 향상, 발달시키기가 곧 선수행의 핵심이다.

온갖 것을 지각(知覺)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虛想)이 짓는 조작(造作)이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죄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중생의 몸이, 오장육부는 속에 있고 구멍은 밖에 있사운데 내장은 어둡고 구멍은 밝은 것이오니, 이제 제가 부처님을 대하여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은 밖의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고,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속의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뜻이 어떠하겠나이까.”

● ●

생각 자체가 곧 그 사람의 심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네가 눈을 감고 어둠을 볼 적에 그 어둠이라는 경계가 눈과 상대한 것이나, 상대한 것이 아니냐. 만약 눈과 상대한 것이라면 그 어둠은 눈 앞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속이 되겠느냐. 만약 그것이 속이라면, 해도 달도 등불도 없는 암실 속에서 보는 그 어둠도 모두 네 내장이겠구나.

그리고 만약 상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본다는 것이 성립하겠느냐. 만약 밖으로만 보는 것을 떠나서 안으로도 상대하는 것이 성립된다 하여 눈을 감고 본 어둠을 몸속이라고 한다면 눈을 뜨고 밝음을 볼 적에 어찌하여 얼굴을 못 보겠느냐. 만약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으로 상대한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얼굴을 본다면 이 깨닫는 마음과 눈이 허공에 있어야 할 것이니 어떻게 제 속에 있는 것이 되겠느냐. 만약 허공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저절로 네 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래가 네 얼굴을 보는 것은 역시 네 몸이라고도 하겠구나. 그렇다면 네 눈은 알더라도 몸은 깨닫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반드시 몸과 눈 두 가지가 다 깨닫는다고 한다면 두 개의 알음알이가 있는 것이니 너 한 사람이 두 부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말한, 어둠을 보는 것이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난다가 말하였다.

“제가 일찍이 들으니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남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기므로 여러 가지 마



음이 난다’고 하셨나이다. 제가 이제 생각하오니, 이 생각하는 자체가 곧 심성(心性)일 것이오매,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서 있는 것이옴고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네가 이제 모든 것이 생기므로 여러 가지 마음이 난다고 하여,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서 있다고 말하지만 이 마음은 체(體)가 없으니 합할 바도 없는 것이다. 만약 체가 없는데도 능히 합한다면 이는 십구계(十九界)가 칠진(七塵 : 塵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모든 존재는 六塵에 의한 十八界(十八界)와 합한다는 것과 같으니 이 뜻이 그렇지 않으리라.

만약 자체가 있다면 네 손으로 네 몸을 만지는 것과 같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네 마음이 안에서 나오겠느냐, 밖에서 들어오겠느냐. 만약 안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밖에서 들어온다면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 ●

보는 것이 없으면 아는 것도 없다

아난다가 말하였다.

“보는 것은 눈이옴고 마음은 아는 놈으로서 눈이 아니오매 본다는 것은 옳지 않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눈만으로 볼 수 있다면 네가 방 안에 있을 때, 문이 능히 본다고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방 죽은 이도 눈은 있으니 마땅히

물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물건을 본다면 어떻게 죽었다고 하겠느냐.

아난다야, 또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자체가 있다면 그 체(體)가 하나냐, 여럿이냐. 지금 네 몸에 두루 한 것이냐, 두루하지 않은 것이냐. 만약 한 몸이라면 네가 손으로 한 활개를 찌를 때 네 활개가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며, 만약 모두 깨닫는다면 찌를 네가 따로 없는 것이 된다. 만약 따로 있다면 체가 하나라는 것이 될 수 없다. 또 체가 여럿이라면 여러 사람이 될 것이니, 어느 체를 너라고 하겠느냐.

만일 네 몸에 두루 하였다면 앞에 말한 활개를 찌르는 경우와 같을 것이요, 두루 하지 않았다면 머리를 다치고 동시에 발도 다쳤을 때 머리는 알아도 발은 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그렇지 않으니,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서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죄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등 여러 법왕자와 실상을 말씀하실 때, 저도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나이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안에 있다면, 내장을 보아야 할 것인데, 보는 바가 없고,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알지 못해야 할 것이옵니다. 안으로는 아는 것이 없으므로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고 있음으로 밖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나이다. 이제 서로 알고 있음으로, 또 안을 봄이 없으므로 마땅히 중간에 있겠나이까.”

오행사상이 깃들여 있는 단청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단청의 기본 색깔은 청(靑)·적(赤)·백(白)·흑(黑)·황(黃)의 오색(五色)으로 오행사상(五行思想)과 관련이 있다. 오행이란 우주에 운행하는 원기로서 만물을 낳게 한다는 물(水)·나무(木)·불(火)·흙(土)·쇠(金)

의 5원소를 말한다.

단청과 오행

단청의 기본 5색과 관련이 있는 오행설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예기술서인 '주례(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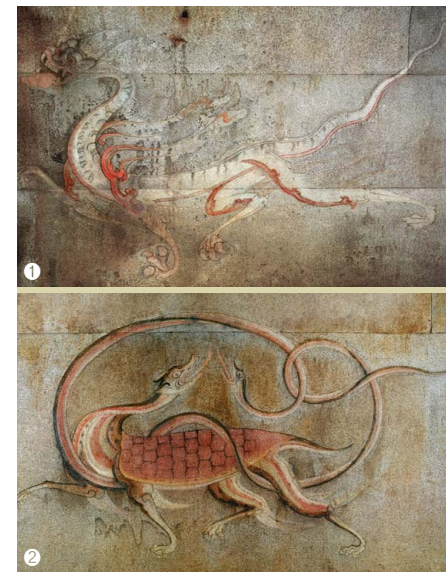
禮)의 고공기(考工記)에 '금(金)은 백색과 상생하고 목(木)은 상극이다. 목(木)은 청색이며, 청과 백을 혼합하면 벽(碧)색이 된다. 목(木)은 토(土)와 상극이며 토(土)는 황색인데 청과 황을 혼합하면 녹색이 된다. 토(土)는 수(水)와 상극이며 수(水)는 흑색인데 황과 흑을 혼합하면 갈색이 된다. 수(水)는 화(火)의 상극이며 화(火)는 적색인데 청과 적을 혼합하면 자색(紫色)이 된다. 화(火)는 금(金)과 상극이며 금(金)은 백색인데 적과 백을 혼합하면 홍색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잡찬집(雜纂集)'에서 '오색에는 사물의 빛갈이 있다.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 서쪽은 백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이니 바로 이것이 오색이다'고 하여 오행의 방위와 색상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단청과 사신도

사신도(四神圖)는 중국 고대 사상에서 발생한 방위도(方位圖)로 음양오행설에서 비롯되었다. 음양오행설은 전국시대 말에 음양설과 오행설이 결합되어 사회 질서와 운영원리를 설명함으로써 현실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나아가 사람이 죽은 후 묘지를 선정하는 풍수지리에 적용되었다.

그 뒤 후한대에 이르러 사신수(四神獸)가 방위 신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고,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에 걸쳐 크게 유행하여 회화와 공예의 기본 무늬로 자리하였다. 사신수는 동방의 청룡(靑龍), 서방의 백



① 사신도 백호 ② 사신도 현무

호(白虎), 남방의朱雀(朱雀), 북방의 현무(玄武)이다. 이 사신은 동서남북 네 방향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 이십팔수와 관련 있는 상상속의 동물이다.

고구려의 사신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벽화고분에서 크게 유행하여, 90여 기의 벽화고분 가운데 34기의 무덤에서 사신도가 확인되었으며, 생활풍속도와 함께 묘사되거나 독립적 제재로 등장하였다. 고구려의 사신은 우주의 방위신이며 무덤 주인을 위한 수호신으로, 선인으로 묘사하였던 같은 시기 중국 묘실벽화(墓室壁畵)의 사신도와 구별되었다.

또한 사신도는 백제에서는 공주 송산리 6

호분과 능산리 고분에서 확인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개성 수락암동 1호분에서는 12지상과 함께 등장하며, 석관에도 묘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 임금의 목릉(穆陵)에 산신도가 있으며 민화(民畵)에서도 널리 그려졌다.

사신도는 고구려 고분벽화 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방의 청룡, 서방의 백호, 남방의 주작, 북방의 현무를 오방을 수호하는 신으로 상징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오방사상(五方思想)을 오행과 절기, 방위, 색, 신상(神像)과의 관련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오행(五行)의 상징

오행(五行)	절기(節氣)	방위(方位)	색상(色相)	신상(神像)
목(木)	봄(春)	동(東)	청(靑)	청룡(靑龍)
화(火)	여름(夏)	남(南)	적(赤)	주작(朱雀)
토(土)	토용(土用)	중앙(中央)	황(黃)	인황(人皇)
금(金)	가을(秋)	서(西)	백(白)	백호(白虎)
수(水)	겨울(冬)	북(北)	흑(黑)	현무(玄武)

고대 단청의 색조

삼국시대

우리나라 고대단청의 채색은 수산리 고분, 통거우 5회분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약 90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당시의 채색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화려한 단청채색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용된 채색의 종류는 흑색·적색·황색·청색·자색·녹색·백색 등을 기본으로 하여 황토색과 갈색·청록

계열의 다양한 혼합 색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적색은 다시 적색·주황색·홍색 등으로 구분되며, 다른 색들도 명도와 채도의 변화가 풍부해 다양한 색상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의 단청 채색은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 고분벽화에서 당시의 채색이 미약하게나마 전해지고 있다. 백제는 고구려와 동일한 계통으로 문화적 성격이 유사하여 고분벽화에 그려진 사신도 등에 나타난 색채로 미루어 고구려와 같이 건축물에도 단청을 채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베개와 발받침은 각각 적색과 옷칠로 칠해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단청이 일반 기물에까지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단청 채색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골부터 단청의 기본색인 오채(五彩)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상위 계급인 성골, 즉 왕궁에서만 오색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고려는 삼국시대 단청 색조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인 배색이 이루어져 오늘날 우리나라 단청 색조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문헌에는 단청 색조가 매우 화려했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오늘에 전하는 고려시대 단청 유물은 당시의 채색이 거의 퇴색되어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려시대에는 청색·적색·녹색·황색·



▲ 수산리 고분벽화

백색·흑색의 기본색을 혼합하여 다양한 색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강한 원색 대비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전 등에서 감지되는 단청 색조는 오늘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단청의 배색이 정착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건물의 내·외부 배색을 달리했는데 외부에는 명도가 높고 화사한 등색·황색을, 실내에는 녹색·청색을 주로 채색해 비교적 차분하고 온화한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된 단청 안료는 장단·주홍·황·석록·석청·석간주 등이며 후기에는 양청·양록이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이들 안료에 분·먹을 혼합해서 색도를 조절하거나 2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여 다

양한 간색(間色)을 만들어 썼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부터 고려시대 단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휘(暉)’ 색대가 머리초에 사용되었다. 휘는 건물 장엄의 등급과 부재의 길이에 따라 최소 2단에서 최고 6단까지 장식되었으며, 색의 배치는 난색(暖色)과 한색(寒色) 계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배색하여 보색대비의 화려함을 보여 주었다.

조선시대 단청 색조는 동일 색의 그라디에이션을 최대 3단계까지 사용해서 부드러운 명도 대비와 채도 대비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단청 색조는 우리나라 단청의 전형을 이루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회화·조각·민예·공예 분야에도 널리 응용되어 우리나라 채색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피안에 이르는 길목 철원 화개산 도피안사

도피안사(到彼岸寺)의 의미는 '영원한 안식처'다. 신라 경문왕 5년(865년) 도선국사(道詵國師)가 1천500여명의 대중과 함께 철불을 조성하고 삼층석탑을 세워 창건했다는 이야기로 봐 건립 당시에는 규모가 상당한 큰 유서 깊은 고찰이었다.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도피안사의 창건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서려 있다. 도선국사가 철조비로사나불상을 조성하여 철원의 안양사에 봉안하러 가던 도중 불상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봤더니, 지금의 도피안사 터에 안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절을 짓고 불상을 모셨다.

도선국사는 이 절을 비보사찰(裨補寺刹) 중 하나로 삼았다고 한다. 옛기록에 의하면 도피안사가 자리한 화개산은 물위에 떠 있는 연꽃이 활짝 핀 형상이라고 한다. 앞에는 대교천이 흐르고 뒤쪽에는 저수지가 있어 물위에 떠있는 한송이 꽃처럼 보인다고 한다. 때문에 산세가 허약해 바람에 흔들리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고 해 그 가운데에 절을 짓고 무거운 철불(鐵佛)을 봉안했다고 전해온다.

절의 이름은 철조불상이 피안(彼岸)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도피안사라고 했다고 한다. 도피안사는 창건 이후 천년동안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하나 자세한 중수나 역사는 전하지 않는다. 단지 1898년 봄 큰 화재로 사찰의 모든 건물이 전소되면서 허허벌판에 비로사나불좌상만 덩그렁 남았다고 한다. 이에 월운스님이 신도 강대용의 도움으로 법당 3칸을 지은 후 불상을 봉안하였다. 또 1914년에 칠성각과 산신각을 중건하였으나 6·25 전쟁 때 다시 소실되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그 뒤 1959년 15사단 장병들에 의해 재건되었으나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사람들의 발길

이 뜸했다고 한다.

도피안사는 1985년 이후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비로사나불의 가피와 더불어 불자들의 마음을 밝히는 대도량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도피안사는 1985년 사찰관리권이 민간인으로 넘어오고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인 신흥사의 말사로 등록되면서부터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주지로 취임한 대원스님이 1988년 대적광전과 삼성각과 요사채를 신축하고, 2002년 주지 도견스님이 사천왕문과 해탈문을 신축하면서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도피안사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철조불상과 석탑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신라말에서 고려 초에는 철로 만든 불상이 크게 유행했는데 국보 제73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철불이다. 이 불상은 불상을 받치고 있는 대좌(臺座)까지도 철로 만든 보기 드문 작품이다.

철불의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가름한 얼굴은 인자하고 온화한 인상이다. 평판적인 신체에는 굴곡의 표현이 없고, 양 어깨를 감싼 옷에는 평행한 옷주름이 형식적으로 표현되었다. 불상 뒷면에는 신라 경문왕 5년(865)에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남아 있어서 만든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던 철조비로사나불상의 새로운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능숙한 조형수법과 알맞은 신체 비례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도피안사에 가는 길이 먼 만큼 주변의 볼 거리도 꼭 한번 둘러봤으면 한다. 북으로 조금만 발길을 돌리면 월정역, 노동당사 등 분단의 아픔이 서린 전쟁유적지가 흩어져 있고 궁예성지 등 문화유적이 수도룩하다. 철원 평야의 젖줄 구실을 하는 한탄강에는 고석정, 직탕폭포, 순담계곡 등 빼어난 비경들이 즐비하다.

도피안사를 뒤로하고 철원평야를 가로질러 신철원 쪽으로 승용차로 10분 정도 달리다 보면 고석정이 나온다. 고석정은 의적 임꺽정이 은거하며 관군에 맞섰다는 전설이 서린 곳. 한탄강 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가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한탄강 중류에는 깊고 높은 절벽이 있고,

그 한가운데 커다란 현무암이 우뚝 솟았다. 그 이름이 ‘고석’ 이고 ‘고석정’ 은 한쪽에 자리잡은 2층짜리 누각을 말한다. 드라마 ‘추노’, ‘무사 백동수’, ‘선덕여왕’ 등의 촬영지이기도 한 고석정은 의적 임꺽정이 고석정 일대 자연석굴에 은거하며 이곳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고 한다. 고석정은 후대 사람들이 임꺽정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이고,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가 1971년에 재건됐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는 전차, 장갑차, 전인포, 전투기, 탱크 등이 전시돼 있는 ‘철의 삼각전적관’이 있다. 이곳에선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를 기념하고, 전쟁관련 유물과 북한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영화관과 전시관이 마련돼 있어 도피안사를 다녀오



① 도피안사 경내전경
② 삼층석탑

는 길목에 한번쯤 둘러봄직하다.

노동당사는 허허벌판에 빼대만 남아 있는 건물이다. 얼마 전에 보수를 한 노동당사는 여전히 수많은 탄흔과 전차, 그리고 망가진 계단을 간직한 채, 군데군데 반쳐 놓은 철기둥은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곳은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돼 있다.

남한의 최북단 종착역인 월정리역은 6·25전쟁 후 50년간 한 번도 기적소리가 들린 적이 없고 기차가 멈춘 일도 없다. 하지만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문구와 부서진 기차의 잔해는 전쟁의 참상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크고 화려한 사찰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소실과 전쟁 등 모진 풍파도 많이 겪었지만 지난 천년 동안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온 도피안사는 지금도 수령 600년 된 느티나무와 함께 멀리서 온 불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도피안사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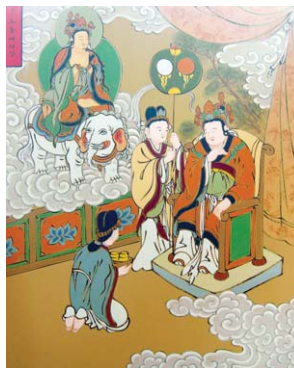
승용차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춘천에서 내려 화천으로 간다. 화천에서 하오터널을 지나 자등리와 신철원, 철의 삼각전적지를 지나면 도피안사가 나온다.

부처님의 일대기 팔상성도

사찰의 전각 내외 벽면에 그린 그림을 불교 벽화라고 한다. 벽화 중에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이 바로 팔상성도(八相聖圖)와 심우도이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중요한 행적을 여덟 단계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서 팔상(八相)이라 한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는 곧 그 자체로 불교의 요체를 알려준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믿음을 더하기 위해 팔상성도를 즐겨 그렸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팔상도는 인도 녹야원에 남아 있는 돌로 새긴 그림이다. 중국 윈강(雲岡)석굴에는 5세기 무렵에 그린 팔상도가 있다.



팔상성도 가운데 첫 번째는 ‘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이다.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연등부

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 기회에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리라 깊이 다짐을 하며 연등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 하였으나 공양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여인이 들고 있는 꽃 일곱 송이를 간청해 산 수메다는 그 꽃을 연등부처님께 바쳤고 부처님께서는 수메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해 대중에 바친 꽃을 허공에 떠 있게 하셨다.

그때 마침 연등부처님과 제자들이 지나는 길에 진흙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본 수메다는 진흙 웅덩이 위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 엮드리며 언젠가 자신도 지금의 연등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다짐하였다.

비람강생상(毘藍絳生相)에는 마야 왕비가 룸비니 동산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태자를 출산하고 계신다. 출산을 위해 고향으로 향하던 마야부인은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아무런 고통이나 상처를 받지 않고 사자족의 왕자를 낳게 되니 이 날이 음력 4월 8일이었다.

이 아기는 낳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

음을 걷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存)’이라 외쳤다. 정반왕은 태자의 이름을 고타마 싯다르타라 지었다.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은 주로 ‘수행본기경’ 또는 ‘불본행집경’ 등의 내용에 따라 그려진다. 궁중의 안락과 사치 속에서 성장한 싯다르타는 어느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일체세간의 모든 중생이 다 예외 없이 겪는 것임을 듣고는 궁중생활의 허무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성년이 된 태자는 성문 밖 유람에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고 변민하게 된다. 그러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출가 수행자에게서 찾게 되었다.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은 태자가 종마 칸타카를 타고 시종 찬다카는 칸타카의 꼬리를 붙잡고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태자가 복문을 나섰을 때 출가 사문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수행생활만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출가를 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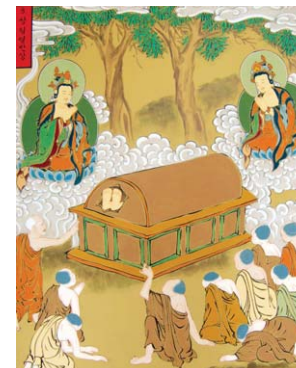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에는 눈 덮인 설산에서 혹독한 수행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싯다르타 태자는 숲속에서 6년 동안의 혹독한 고행에도 그 거룩한 진리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 소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단식으로 피폐해진 육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뒤 설산의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깊은 명상에 잠긴다.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은 동쪽에서 솟아 오르는 밝은 새벽별을 보고 무상정등정각을

이룬 뒤 마왕 파순 등 모든 마왕의 항복을 받아 드디어 보리수 아래에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것을 말한다. 이때가 부처님이 35세가 되던 해인 음력 12월 8일 성도절이다.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에는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법을 처음으로 설하시는 장면이 그려진다. 깨달음의 완성을 상징하는 연화좌 위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과 법을 듣는 다섯 수행자, 그리고 설법 장소가 녹야원임을 상징하는 사슴이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그려지는 것이다.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은 열반 적정상(涅槃寂靜相)이라고도 한다. 80세에 이른 부처님은 바이샬리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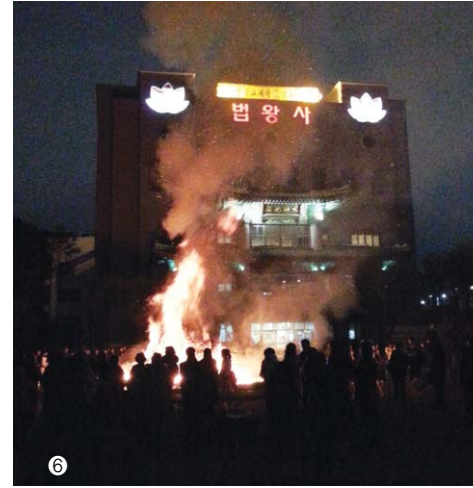


처의 죽림촌에서 아난다와 단둘이서 최후의 우안거를 지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린다. 근심한 아난다는 부처님의 별세 후에 무엇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묻자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유명한 부처님의 열반유언이다.



액난소멸 기원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14일 법왕사 광장에서 갑오년 정월 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및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갑오년 한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는 소원지를 붙인 달집을 태워 일년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를 빌었습니다.



- ① 달집 태우기 행사 전 불자들이 소원지를 붙인 달집
- ② 달집 앞에 불자들이 밝힌 촛불
- ③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해 대기중인 수성소방서 소방차
- ④ 행사 전 법당에서 불공을 올리는 불자들
- ⑤ 힘차게 타고르는 달집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주지 실상스님
- ⑥ 법왕사를 배경으로 달집이 타고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불자들
- ⑦ 촛불을 밝히는 불자들
- ⑧ 사회를 보는 자운스님
- ⑨ 법문하는 주지스님
- ⑩ 발원문을 낭독하는 사공순옥 불자
- ⑪ 달집에 불을 붙이는 불자들
- ⑫ 타고르는 달집 주위를 돌며 정근하며 기도하는 불자들
- ⑬ 달집 태우기에 앞서 유현연 불자의 살풀이춤 공연



법왕사 소식

2월 14일,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14일 법왕사 광장에서 갑오년 정월 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및 소원성취 기도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갑오년 한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는 소원지를 불인 달집을 태워 일년동안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를 받았습니다.

4층 대적광전 천장 단청공사 완공 임박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천장공사가 착공 13년만인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정을 90%를 보인 가운데 단청공사가 한창입니다. 가설물 위로 드높은 천장에는 우물반자를 완성하고 여법한 단청을 칠하고 있어 조만간 그 위용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법당 천장에 드리울 대형 상들리에 3개 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하실 불자님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갑오년 설날 합동차레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31일 음력 설을 맞이하여 평생위패를 봉안하신 불자 등 150여 위패에 대해 합동차레를 올렸습니다. 합동차레는 불가피한 이유로 가정에서 차레를 지낼 수 없는 불자들도 동참하여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차레를 올렸습니다.

제주도 약천사 2박3일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 약천사를 비롯해 불교성지를 순례하고 봄을 맞은 제주관광도 겸하는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 첫째날은 천왕사와 관음사를 참배하고 점심 공양 후 예코랜드 등을 둘러본 뒤 약천사에서 1박을 합니다. 둘째날에는 마라도 기원정사를 참배하고, 석부분재 테마파크 등 관광지를 둘러본 뒤 일반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뒤 고관사를 참배하고 한라산 마방목장과 민속체험 마을 등을 보고 대구로 돌아올 예정이오니 많은 불자들의 동참바랍니다. 동참금은 33만원이며 300명 선착순 접수합니다.

팔상성도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8일(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재일을 시작으로 3월 15일(음력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팔상성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팔상성도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탄생에서 열반까지 중생 구제를 위

법왕사 소식

해 보이신 모든 행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열심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듯 우리 불자들은 모름지기 더욱 발심,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해오름요양원 부지대금 완불, 입택까지 마쳐

법왕사는 달성군 가창면에 마련한 제2해오름요양원 부지 1천여평 매입대금 7억원 가운데 막대금을 지난 2월 17일 지불하고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입택절차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시설 설계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현재의 요양원 부족 현상을 극복할 계획입니다. 불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일기도 제3차 기도 봉행

지난 1월 15일 입재한 천일기도 3차 기도가 지난 2월 14일 보름 행사 후 오후 2시 본당에서 1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기도법회는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2시간 30분 동안

약간 49독 후 축원을 하였습니다. 천일기도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두 차례 봉행합니다.

돌산대교 바다에서 정초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9일 12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여수 돌산대교 바다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향일암을 참배하였습니다.

전 법왕사 고문 최대일 영가 막재 봉행

법왕사 고문이셨던 고 최대일 ECA외국어학원 원장 영가님의 49재 막재가 정월 대보름 다음날인 2월 15일 엄수되었습니다.

이날 막재에는 거사님께서 설립하신 명정장학회 회원이자 제자 12명을 비롯해 2백여 불자들이 동참, 금강경을 독송하였으며 우담바라 합창단의 '고운님 잘 가소서' 합창과 함께 유희연 보살의 왕생극락무, 살풀이 공연도 있었습니다.

최거사님은 법왕사 창건 당시 부지 매입대금 1억3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흔쾌히 시주하시어 지금의 법왕사가 있게끔 씨를 뿌리신 창건 공로자입니다.

홍순영 선생님의 작명 · 개명 · 택일

법왕사에서는 풍수 및 역학 전문가 홍순영 선생을 모시고 불자님들의 작명 · 개명 · 택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작명이나 사업체 작명, 개명, 결혼 택일 등 일생의 중대사와 관련된 일들을 사주와 명리의 역학 이론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강사 홍순영 선생



- 역력 : 대한풍수학회 회장
한국역학인총회 고문
동양문화연구원 원장
- 저서 : 「나도 풍수가 될 수 있다」
「명리특강 1, 2, 3」
- 논문 : 「수리길흉론」
「나경 사용법」

문의 : 766-3747, 9088

새로 오신 법우님

이문진	석종대	이우영	이동학	김춘자
황정웅	류대희	심석구	문환영	이재영
김용만	김성진	강병두	권우종	이정만
박재원	채봉기	송병호	김달섭	김경욱
이창석	이태희	이승곤	안규용	이진영
유영진	이정우	김동호	이병진	이병호
권명진	차남석	정연직	장성호	이상철
정연복	박준수	정영미	류준하	정연석
정원현	김태환	김종원	김용태	권순미
김 용	정우현	정영순	유희식	정태호
이재광	조창화	김대영	심영호	이상원
송순희	강영태	최성용	이호승	이우준
최은영	허영식	김충년	정채영	박형재
김명희	김영진	정재훈	박영학	최석봉
공효석	이상학	정왕국	배지우	김두성
오광일	손홍락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
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최태희 50부	김영자(최대일 영가) 1000부
최옥남 500부	해오름요양원 직원일동 100부
무명씨 200부	백법성행 50부 이세정 50부
이재학 50부	김형재 100부 최양이 100부
조준승 100부	강정선 100부 김기수 100부
김정숙 100부	법안스님 500부
심규암 500부	자운스님 500부

축원 올리신 분

● 수능기도 올리신 분
박민규 전수영 신정수 연정무

● 일년기도 올리신 분
정원현 이재욱 조철제 박말순 장오규
백보현행 김추석 박호황 장백련화 김순조
연명석 박철취

● 갑오년 일년 사업기도 올리신 분
원공업사

공양 올리신 분

● 떡공양 올리신 분
손승매 오금옥 김금자 정태호 전숙환
서영범 윤병순 배해동 강유미 이순란
김상희 김하균

● 정초기도 대중공양 올리신 분
세광하이테크 이정상(과일12박스)
박종성(잔대 10개 직접) 고연숙 신장희
관음회 지장회 산신회 합창단
합창단장 이임숙 하경용(버섯)
김순태(버섯) 이수지
최중옥(소고기 10근) 이재우 이승재
운불련(드링크케 1박스)
BBS라디오 박치민(드링크케 1박스)
동양식품(하림텐더스틱 1박스, 생선까스 1박스,
사골곰탕 3박스)

● 공양미 올리신 분
오계식 영가 이남희 심보현
신병기(참쌀 6만원) 장학순 강영진 김기수
정시영 박정규 김기석 서수민 도종신
류재달 조민규 윤준옥 김상원 이상규
김세진 변영구 정민우 손대호 김상원
박경훈 김성미

● 향일암 방생 및 순례 공양 올리신 분
세광하이테크 이정상(과일 12박스)
석남사 덕운스님(과일 2박스)
신용홍(배 1박스 직접) 신정순(과일 직접)
대길이 어머니(사과 2박스 직접)
우성복(꽃감 1박스 직접) 한유경(과일 1박스 직접)
정무시(배 1박스 직접)
최서원성 이임숙 황미선(배 1박스)
장호식(꽃감 1박스) 박백련화(과일 1박스)

● 꽃등 올리신 분
장삼술 손점순 이원석 이임규 박정수
정광진 박경훈 박해진 양영갑 정현균
양문갑 백상현 강석윤 박동근 문국연
정옥순 김임태 조현갑 백대행심 오견덕화
조현우 백보현행 조민규 이동희 이성희
허상훈 김영국 김영홍 이은국 박영근
오재효 연정무 최영근 조영부 채수환
김상한

가사 올리신 분

최재훈 정광춘 배수현 김희동 장재혁
변선유화

축하드립니다

민병철, 조복남님의 장남 민용준군의 결혼식이
2월 8일에 있었습니다.

돼지저금통 회향

홍공덕심 최옥남 이순일

불사 올리신 분

● 만불전 원불 올리신 분
김정은 영가(지장보살 중불)

● 한평불사 올리신 분
박재관(반평) 최영숙(반평) 박정흠(반평)
정유경(반평) 문상옥(반평) 박경량(반평)
손정열(반평) 최서성원(반평) 신구자
황부원(반평) 권옥화(반평) 고진웅 조준권
백대행심 김상연 김정석
▶가창 삼산리 1천여명 제2해오름 요양원병원 건립중
추가 600여명 매입 본사에 동참을 요합니다.

● 범종불사 올리신 분
김혜진

천일기도 올리신 분

권영돈 성진경 이임규 강신원 이정란
김대근 제창해 남현우 손국본 금동인
천기태 권순경 조민수 이성자 이동학
손대호
▶매일 음력 초하루, 보름 오후 2시(본당 주지스
님 집전 축원 특별기도)

갑오년 만불전 법당(가족)등 올리신 분

119 권영세 120 원승요 121 이호홍 122 임분자
123 정미령 124 이승재 125 박재근 126 김옥희
127 김종한 128 이영우 129 신창진 130 이현우
131 김점행 132 박동숙 133 김주근 134 박현규

135 유시환 136 손홍락 137 임귀연 138 광창영
139 안덕용 140 조규창 141 이병훈 142 박호현
143 사공순옥 144 최춘자 145 전삼수 146 최말순
147 김찬호 148 이구방 149 이순석 150 신원섭
151 김경현 152 김성훈 153 차수열 154 정연국
155 정연직 156 정연복 157 정영미 158 류준하
159 정연석 160 박정목 161 장영우 162 정규하
163 박석홍 164 정태중 165 도종신 166 이우준
167 이호찬 168 송홍점 169 문환영 170 김화자
171 김호택 172 안시우 173 조정호 174 오광일
175 신용홍 176 변영구 177 정하권 178 김태한
179 백삼택 180 우영근 181 이종량 182 정태진
183 유기상 184 김재용 185 서규하 186 권순미

왕생극락하옵소서

◆이경미 부모님 기제사가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류윤기 영가 초제가 2월 5일에 있었습니다.
◆현두순 영가 초제가 2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최대일 영가 막제가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서위분 영가 초제가 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손태근 영가 막제가 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김원희 영가 막제가 2월 18일에 있었습니다.
◆김정은 영가 초제가 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정정갑 영가 기제사가 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문충덕 부모님 기제사가 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25회 백고좌 법회 BBS 불교방송 시간
2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시, 13시, 20시

■ 26회 백고좌 법회 BBS 불교방송 시간
4월 첫째주부터 매주 수요일 방송
오전 1시, 13시, 20시

해오름 소식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프로그램

김명희 자원봉사자의 진행으로 놀이프로그램에 열중한 어르신들의 표정이 마치 화사한 봄꽃 같습니다.



참사랑문화공연단

참사랑문화공연단 봉사자분들께서 2월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전체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무대를 꾸며 주셨습니다.



녹색환경봉사단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의 녹색환경봉사단 여러분이 봄 햇살처럼 요양원을 환히 밝혀주셨어요!



미술치료프로그램

2월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실 권유미 선생님 환영합니다!



생신잔치

사뎡달인 2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박○분, 지○달 어르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해오름요양원 부지대금 완불, 입택까지 마쳐

법왕사에서 달성군 가창면 에 마련한 제2해오름요양원 부지 1천여평 매입대금 7억원 가운데 막대금을 지난 17일 지불하고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입택철차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시설 설계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현재의 요양원 부족 현상을 극복할 계획입니다. 불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해오름 게시판

2014 MARCH Vol. 238호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월)

◎ 수입내역

신세호 1만원	채옥연 5천원	안상준 2만원
안명희 1만원	이용옥 1만원	배수현 2만원
강소남 5천원	황미선 2만원	김외환 1만원
신돈식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노수정 1만원
박순남 5천원	여택동 5천원	유명옥 1만원
권계화 1만원	박용관 1만원	안경순 1만원
김기덕 2만원	장우성 1만원	김영희 5천원
장인숙 5천원	이임숙 2만원	김정순 3만원
정순옥 5천원	권오성 1만원	현인숙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무용 5천원	강심규 5천원
정운현 5천원	정활수 3만원	신화식 1만원
박태숙 5천원	김은주 1만원	임상덕 1만원
조창신 1만원	박창목 5천원	김영랑 5천원
김임태 5천원	황준원 5천원	이현우 1만원
박재후 1만원	정시영 1만원	최창숙 5천원
김유진 1만원	허유미 5천원	권보형 2만원
주성순 5천원	이은주 1만원	황지영 5천원
홍새미 4만원	조정자 5천원	문정애 2만원
장호주 5천원	조규인 1만원	장성규 5천원
류운만 1만원	남기웅 1만원	사공관 1만원
김미자 1만원	노귀자 5천원	강유미 5천원
정옥선 1만원	도화순 5천원	이정옥 1만원
이정희 5천원	윤광숙 5천원	장재혁 5천원
정무시 1만원	이정희 5천원	고선영 1만원
양봉춘 1만원	김정임 1만원	김우영 1만원
박명숙 1만원	이재봉 5천원	권숙자 1만원
김경환 1만원	최복례 1만원	김정규 5천원
현영희 1만원	강희정 5천원	권봉자 3만원
이전희 5천원	강영도 2만원	임승현 1만원
오금옥 1만원	엄세비 1만원	이정훈 1만원
강숙영 1만원	박대희 5천원	최상옥 5천원
심규암 5천원	박귀분 1만원	이남희 1만원
한희록 1만원	김정자 5천원	김원형 3만원
박학순 1만원	박병준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예분 1만원	조용수 1만원	황상숙 2만원
구정대 2만원	박순영 5천원	김정희 1만원
최은순 1만원	김순태 1만원	임익균 1만원
윤순희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민주 1만원
곽순복 2만원	김미옥 2만원	백옥수 5천원
장성용 1만원	강선옥 1만원	김수라 1만원
박연경 1만원	정대영 1만원	김진성 1만원

최분규 1만원	진봉희 1만원	손말두 5천원
심중순 5천원	양나영 5천원	김주희 5천원
정선옥 5천원	한규매 5천원	신혜경 5천원
홍유식 5천원	박치민 5천원	정연이 5천원
최경순 1만원	신임선 5천원	강희정 5천원
이인순 5천원	성외련 2만원	김예분 1만원
시명스님 5천원	김봉숙 5천원	정경석 2만원
박정목 1만원	성승길 1만원	오남옥 5천원
김영일 1만원	이호동 5천원	김형택 2만원
이병희 1만원	신구자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문정자 1만원	김순란 3만원	조영석 1만원
이강복 1만원	무기명 98,850	윤희자 3만원
박영숙 2만원		

합계 1,728,85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동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433,390원
- 업무용차량주유	200,000원
- 약품구입	111,600원
- 요양원 필요물품구입	19,000원

1월 총 사용내역 831,99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남분한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2box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 홍삼드링크 2box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비오비타 2box
박정록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20개
신동철	: 하이바 1box
김명희	: 카스타드 2box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배 1box
유세모 어르신 보호자	: 수건 10장 현금 3만원
녹색환경봉사단	: 기저귀 5box 디팬드 2box

이시종 어르신 보호자 : 치즈빵 1box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야구르트 45개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장어와미꾸라지 추어탕 : 40인분
김순란 : 과일
효산병원 장례식장 : 떡국재료 100인분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하신 분

단체 : 녹색봉사단 15명(매월 셋째 주), 참사랑공연단 6명(매월 1회)
 개인 : 김명희, 권유미, 장영임, 이경주, 장은별, 최지훈, 김지현, 이가영, 박수현, 이지나, 김미령, 이하나

요양원 소식

- 제2해오름요양원 2월 17일 등기 완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115번지)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이시종 김태원
요양보호사 : 김옥련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제2해오름요양원 ·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찬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동참하고 계신 분

김상연 1명 김정석 1명
 김인숙 1명 백대행심 1명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립니다)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 다 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사찰요리 : 개강예정
- 합창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정무시 지휘자 선생님
- 사물놀이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사 : 이정화 선생님
- 서각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강사 : 신임선 선생님

법왕불교대학 초급,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급 주야간반을 비롯하여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을 개설합니다.

- 초급반 실상스님(법왕사 주지) (주야간) 기초교리
- 중급반 영일스님(스리랑카 유학) (3개월) 빨리불교 원전
- 고급반 경전강좌 (5개월)

비구니 8인 초청 팔상성도 법회 봉행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간 특별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8일(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재일부터 3월 15일(음력 2월 15일) 열반재일까지 8일 동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팔상성도에 따른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정진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갑오년 한해의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원만히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 재** 3월 8일(음 2월 8일) 토요일 ◆ **회 향** 3월 15일(음 2월 15일) 토요일
◆ **일만배**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8일간) ◆ **법 문** 오전 11시 30분

일 자	법문주제	법사스님
3월 8일(토) 출가재일	도솔래의상	선진스님(대구 보현암 주지)
3월 9일(일)	비람상생상	현정스님(대원사 주지)
3월 10일(월)	사문유관상	경조스님(보현정사)
3월 11일(화)	유성출가상	진관스님(운문승가대 학감)
3월 12일(수)	설산수도상	대현스님(정암사 주지)
3월 13일(목)	수하항마상	운산스님(운문승가대 강사)
3월 14일(금)	녹원전법상	명연스님(서봉사 주지)
3월 15일(토) 열반재일	쌍림열반상	

제26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7일 제26회 백고좌법회 49재를 입재합니다. 이날 입재한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회향일인 4월 24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배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입 재 3월 7일(음. 2월 7일)
초 재 3월 13일(음. 2월 13일)
이 재 3월 20일(음. 2월 20일)
삼 재 3월 27일(음. 2월 27일)
사 재 4월 3일(음. 3월 4일)
오 재 4월 10일(음. 3월 11일)
육 재 4월 17일(음. 3월 18일)
막 재 4월 24일(음. 3월 25일)
보살계(무관스님) 4월 25일(음. 3월 26일)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겉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중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번째 법회인 제26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51일차
3월 7일
특별 법문
진오스님
사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58일차
3월 14일
특별 법문
명연스님
서봉사 주지



●100일차
4월 25일
회향 법회
무관스님
해인사 홍제암

- ◆ 일시 : 2014년 1월 16일 ~ 4월 25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46일차	3월 2일 回	효법스님	해인사 학감	54일차	3월 10일 回	경조스님 (비구니)	보현정사
48일차	3월 4일 回	혜능스님	직지사 강주	55일차	3월 11일 回	진관스님 (비구니)	운문승가대 학감
49일차	3월 5일 回	선일스님	인천 법명사 주지	56일차	3월 12일 回	대현스님 (비구니)	정암사 주지
50일차	3월 6일 回	경성스님	해인사 희랑대	57일차	3월 13일 回	운산스님 (비구니)	운문승가대 강사
51일차	3월 7일 回	진오스님	사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58일차	3월 14일 回	명연스님 (비구니)	서봉사 주지
52일차	3월 8일 回	선진스님 (비구니)	대구 보현암 주지	60일차	3월 16일 回	세준스님	동국대 교수
53일차	3월 9일 回	현정스님 (비구니)	대원사 주지	61일차	3월 17일 回	일선스님	보림사 주지



제27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5월 13일(화)
회향 : 2014년 8월 20일(수)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9월 14일(일)
회향 : 2014년 12월 22일(월)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